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 Sermon Notes**

**Title: “3. The persecuted church ”**

**Scripture: Revelation 2:8-11**

**Date preached: November 9<sup>th</sup> 2025**

**Scripture: Revelation 2:8-11**

8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came to life: 9 “I know your works,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I know* the blasphemy of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10 Do not fear any of those things which you are about to suffer. Indeed, the devil is about to throw *some* of you into prison, that you may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11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He who overcomes sha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

8 **서머나 교회의** 판자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이가 이르사되 9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회당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권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상량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아니하라

**Introduction**

This is sermon number three in what will be an eight sermon series. In sermon one I gave you an overview of the Book of Revelation. Last week we turned our attention to the first letter; the epistle sent to the church in Ephesus. Today we are going to consider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Smyrna. However before we do that lets review some of the highlights from last week's sermon.

We know from our recent studies of 1<sup>st</sup> Timothy that the church in Ephesus was established by the Apostle Paul. He spent three tough years labouring to build up and equip the church. Following Paul the church in that city was guided by Aquila, Priscilla, Apollos and of course Timothy. And according to historic tradition, the Apostle John also ministered there. However despite these sound leaders by the time that the Apostl.e John received the revelation from the Lord Jesus Christ things had gone awry. Before we touch on the letter's contents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the city of Ephesus.

It w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cities of the ancient world. It had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Roman capital of the region of Asia Minor. It was a city of trade and commerce. The reason it was able to flourish was due in large part to its geographic location. It had access to the Aegean Sea. This was via a canal which joined the Cayster River. This link enabled Ephesus to become a great port. It was also conveniently situated at a crossroads for over land travel and trade. This meant traders and merchants from all over the ancient world passed through the city. This was why Paul recognised this as being the perfect place from which the gospel could spread.

The city itself was an impressive collection of fine architecture. There were many grand public buildings such as a library, theatre and sports stadium. However by far the cities greatest claim to fame came through its temple. The temple to Diana or Artemis was one of the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At 115 metres long and 45 metres wide it never failed to impress. But as I pointed out last time having this temple devoted to an evil pagan goddess in your midst impacted the city. We cannot tolerate, let alone celebrate wickedness and evil without it having a corrupting influence. This was certainly true for Ephesus.

Let us turn now and briefly consider what the letter, or the report card that Jesus gave to the church in Ephesus said.

The letter begins with the good. As an aside that's a very good way to approach giving someone a rebuke or chastisement. Tell them that they did this or that well before imparting what they didn't do so well. This is exactly what we see here.

The Lord Jesus commends the church for its work. They earn His praise for working hard and persevering. It is good that they have remained loyal and committed to their efforts in sharing the gospel to the point of near exhaustion.

They are also commended for remaining loyal in doctrine and orthodoxy. The church had stood firm in preserving the true gospel message and rejecting impostors. As we know from our studies in 1<sup>st</sup> Timothy many false teachers (some even claiming to be apostles) had tried to enter the church. The Ephesians had remained resolute and not allowed them to infiltrate.

These are good things. Things that are important for all churches in any age to seek to emulate. Although we may get tired and weary in our efforts we are not to quit. We must continue on, doing what God has called us to do until the end. It is also vitally important that we guard, protect and maintain the truth of the gospel message. Many will come along and try to twist or distort the truth. Therefore we must stand firm.

However, things were not all good in the Ephesian church. The church receives a stern rebuke for losing its first love. They had as I have just explained not given up doing good things. They had not turned their backs on Christ, or failed in their Christian duty. But the passion that they first felt for these things had evaporated. They were now doing their duty out of habit and tradition and not out of love. They may well have remained devoted to the truth and “doing church things” but their fervent passion for Christ had gone. Sadly this description describes many churches and even Christians today. When they first encountered Christ they were full to the brim with excitement. Nothing could stop them from proclaiming His loving kindness to the world. But over time that fire diminished. Now it is just a small glowing ember.

The letter ends however with a note of optimism. Things are not good but in Christ there always lies hope. All is not yet lost for the Ephesian church. If they follow the simple three-step process they can once again be fully restored to God. First, they must remember the love they initially had. Second, they must repent. This calls for them to admit to God their error and sin. Thirdly, and finally they are to return. This means to turn away from the direction they were heading away from God and turn instead to move towards Him and what He wants. If they faithfully follow these three steps they can be saved.

What an encouraging message for any church or believer today. Over time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 our passion can wane. We can easily slip into doing things merely by habit and not because we feel a call or drive to do them. If we feel this way let us remember what Jesus told the church in Ephesus. Remember, repent and return.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econd letter.

이 설교는 8 부 설교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서신,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해 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  
□ □□□ □□□□□ □ 전에 지난주 설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디모데전서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지

가까지 그는 3 년 동안 힘겹게 수고했습니다. 바울을 뒤이어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볼로, 그리고 디모데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무렵에는 교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보기 전에 도시 에베소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수도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무역과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 번영한 주요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카이스터 강과 연결된 운하를 통해 에게 해까지 통했습니다. 이러한 연결 덕분에 에베소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육로 여행과 무역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세계 각지의 상인과 무역상들이 이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도시를 복음이 전파될 완벽한 장소로 인식했던 이유입니다. 이 도시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웅장한 공공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서관, 극장,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나 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길이 115 미터, 너비 45 미터에 달하는 이 신전은 언제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신전이 여신에게 바쳐진 이 신전이 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타락적인 영향 없는 악을 받아들이거나, 더 나아가 찬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 혹은 성적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좋은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잘책하거나 꾸짖을 때 매우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잘한 것을 먼저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사역을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인내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교리와 정통성에 충실한 것도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된 복음 메시지를 지키고 거짓 교사들을 굳건히 배척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거짓 교사들(삼자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어느 시대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비록 힘쓰다 지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진리를 왜곡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히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이유로 엄중한 질책을 받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그들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않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열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전통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진리에 헌신하고 "교회의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그분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꽃은 사그라 들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타다 남은 불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낙관적인 어조로 끝맺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 단계의 과정을 따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기뻐했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등돌려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아와 그분과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세 단계를 충실히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충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  
□□□□ □□□ □□□ □□□ □□□. 소명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remember, 회개하고repent, 돌아오십시  
오return.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A guide to Smyrna**

There used to be a popular TV show on British television called “Wish you were here.” It was broadcast from 1974 to 2003. The format of the show was very simple. Each week one of the shows lucky reporters would be sent to some holiday destination across the world and would film their experiences. They would tell the viewers watching from their sofas in grey and rainy Britain all about the wonderful things you could experience in places most of us could only ever dream of visiting. Since none of us have a time machine that can take us back to ancient Smyrna allow me for to transport you away to that ancient city in Asia Minor. Today's episode of “Wish you were here” is Smyrna circa 96 AD.

Let's begin by locating the city on the map. It is located about 35 miles (56 km) north of the city of Ephesus. Today this is western Turkey. It is a coastal city and boasts of a very fine deep harbour. Today the city still exists though its name has changed. Today it is known as Izmir and it is the third most populous city in modern day Turkey.

But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Smyrna is an ancient city. Its roots go back perhaps as far as 1000 BC. Around 600 BC Smyrna was destroyed by the Lydians and lay in ruins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However in 290 BC two of Alexander the Great's successors rebuilt the city. It was that rebuilt city that was the Smyrna of John's day.

The origin of the cities name is an interesting one. There is a myth that it is named after an Amazonian called Smyrna who was one of the first settlers at this site. Others think that it is named after the Greek word for myrrh meaning “bitter.” Myrrh is a gummy resin (sap) that is extracted from the Commiphora Myrrha tree. It is obtained by slashing or cutting the tree. When the sap or resin oozes out it is pounded down, ground up and mixed with oil to make perfume or incense.

Having such easy access to the ocean helped make Smyrna an important trading city. It was large by the standards of ancient times with a population estimated in the first century AD at around 100,000 people. The harbour which could be closed off in times of war was a very valuable asset. It meant that ships and their wares could be kept safe from marauders or pirates. It was also situated along an important road that ran down the Hermus river valley. This meant that all trade by necessity passed through the city of Smyrna.

The city enjoyed a very nice climate.

Perfect for a day at the beach, or for growing fruit and vegetables. If you enjoy the occasional glass of wine you will be interested to know that the hills around the city were full of vineyards. The city produced and sold a large quantity of high quality wine each year.

In terms of appearance it was said to be a beautiful well laid out city. Some claimed it was the “glory of Asia.”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at honour belongs to Gunpo. Its most famous street was called “Golden Street.” It began at the harbour and ran through the entire city into the surrounding foothills. Along its length could be found temples to Cybelle, Apollo, Asklepios, Aphrodite and Zeus. So as that list of deities suggests it was a place deeply steeped in heathen worship.

The city also possessed a fine library, a sports stadium, many gymnasia, a 20,000 seat theatre and a massive market or assembly place (agora). It's fair to say that any tourist would be impressed by Smyrna.

The city also enjoyed a good relationship within the Roman Empire. The Roman authorities had a soft spot for the city. This was because it had always enthusiastically supported the emperor and had as a result earned his favour. I will speak a little more on what this meant for Christians in a moment. It was due to this favour a “free city” meaning that it was allowed to govern its own affairs and had no Roman soldiers garrisoned there. People were free to go about their daily business provided they remained loyal to Rome. It was also noted as being a centre of excellence for both the study of science and medicine.

What about the church in Smyrna? What were its origins? That's a good question. Scripture does not record the founding of the church at Smyrna, nor is the city mentioned in the book of Acts. All we know about this ancient church is what we read here in Revelation. Most scholars assume that it was originally founded by Paul during his time in Ephesus. But we have no concrete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Let me close this section by speaking a little about the challenges faced by Christians living and operating in Smyrna. At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life was difficult and dangerous for the church at Smyrna. The reason for this was twofold. The first that I mentioned a moment ago was that the city was a hotbed of emperor worship. The city very enthusiastically embraced the annual practice of worshipping the Roman emperor as a god. In fact in 195 BC they even built a temple, The *Dea Roma* specifically dedicated for this purpose. In 23 AD Smyrna won the privilege much like cities today bidding to host the Olympic Games to build the first temple to worship the emperor Tiberius Caesar.

I should point out that emperor worship was a mandatory act for all citizens at the time the letter to this church was written. Under Emperor Domitian, it became a capital offence to refuse to offer the yearly sacrifice to the emperor. To decline to do so meant serious consequences. For Christians this was a major problem. How could they possibly deny Christ and publicly claim that, “Caesar was Lord” (literally the Roman emperor was god). Many believers of Christ could not, and were executed or threatened with execution. Smyrna's most famous Christian martyr was Bishop Polycarp. He was executed in 156 AD.

The second problem for Christians in Smyrna came from the Jews. The city boasted of a large Jewish population who, for obvious reasons did not like Christians. They took every opportunity to report them to the Roman authorities, and generally make their lives difficult. So it was a very challenging time for Christ's followers.

With this useful background information in place let us turn now to the letter itself.

## **서머니에 대한 소개**

영국 TV 에 "Wish you were here"라는 인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74 년부터 2003 년까지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매주 프로그램 진행자 중 한 명이 전 세계 휴양지로 파견되어 거기서의 경험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영국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청자들 대부분이 꿈꿔왔던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대 서머니로 돌아갈 타임머신이 없으니, 제가 여러분을 소아시아의 그 고대 도시로 데려가겠습니다. 오늘의 "Wish you were here" 에피소드는 서기 96 년경의 서머니입니다.

지도에서 도시의 위치부터 찾아 봅시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35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의

터키 서부에 속합니다. 해안 도시이며 매우 아름답고 깊은 항구를 자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시는 이름만 바뀌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에는 이즈미르 Izmir 로 불리며, 현대 터키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머나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 뿌리는 아마도 기원전 10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00 년경 서머나는 리디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어 3 세기 이상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90 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두 명이 도시를 재건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요한 사대의 서머나였습니다.

도시 이름의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 중 한 명인 아마존 출신 서머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쓴맛 bitter" 을 뜻하는 그리스어 몰약 Myrrha 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몰약은 Commiphora Myrrha (수액입니다. 수액이 스며나 오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 기름과 섞어 향수나 향을 만듭니다.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덕분에 서머나는 중요한 무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대 기준으로는 규모가 컸으며, 서기 1 세기에는 인구가 약 10 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폐쇄할 수 있는 항구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와 그 물품들을 약탈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헤르무스 강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모든 무역은 필연적으로 서머나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머나는 기후가 매우 온화했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가끔 외인을 즐기는 분이라면 도시 주변 언덕에 포도원이 가득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서머나는 매년 고품질 외인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했습니다.

도시의 외관은 아름답고 잘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시아의 영광" 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런 영예는 군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서머나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는 "황금 거리 Golden Street" 라고 불렀습니다. 항구에서 시작하여 도시 전체를 관통하여 주변 산기슭까지 이어졌습니다. 거리를 따라 카벨레,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아프로디테와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이교도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훌륭한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여러 개의 체육관, 2 만 석 규모의 극장,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나 집회장(아고라)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서머나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서머나에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는 서머나가 황제를 열렬히 지지했고, 그 결과 그의 총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 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호의 덕분에 "자유 도시" 가 되었는데, 이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었고 로마 군인이 주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학과 의학 연구의 중심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록이 없으며, 우리가 이 고대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처음 세웠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서머나에서 살며 활동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1 세기 말 서머나 교회는 어렵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가 황제 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연례 행사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195 년에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데아 로마(Dea Roma)라는 신전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을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기 23 년에 서머나는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최초의 신전을

건설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작성될 당시 황제 숭배는 모든 시민에게 의무적인 행위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황제에게 매년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카이사르는 주님이다(Caesar was Lord)"(문자 그대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고, 처형되거나 처형 위협을 받았습니다. 서머나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순교자는 폴리카르포스 주교 Bishop Polycarp 였습니다. 그는 서기 156 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서머나 기독교인들에게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 문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았는데, 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고, 결국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서신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 **8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came to life:**

The letter to the church in Smyrna is the shortest of the seven letters. But that is not to say it has nothing to teach us. Its four short verses are packed with power. It is also one of only two letters that contain no words of condemnation.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 church in Smyrna was a perfect church. No church is ever perfect because it comprises imperfect sinful people.

It reminds me of the old joke about searching for the perfect church. If you do find the perfect church don't bother joining it because then it will become imperfect. But the church in Smyrna was a church that was doing its best and fighting the cause well for Christ.

The letter begins as they all do with its address. This letter is intended for the “**angel,**” the lead pastor of the church in Smyrna. He is the one who will receive, and then read and act upon what it contains.

We then read our unique introduction to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As I mentioned to you before each letter has it's own special way of presenting Jesus to its readers.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came to life.**

The first part here echoes what John recorded back in verse 17 of chapter 1.

### **17 And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dead. But He laid His right hand on me, saying to me,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The expression “first and last” is an Old Testament title for God (see Isa 44:6, 48:12). In using it here of Himself Jesus is affirming that He is God. The same description or titles for God the Father and God the Holy Spirit equally apply to Jesus.

To state that you are the “first and last” is to emphasise your supreme eternal status. In the beginning was God. There never was, nor will there ever be a time in which He does not exist. No created being no matter how “powerful” can ever make such a claim. It is for God, and Him alone.

The Lord Jesus then reveals something that is a profound mystery. The Lord Jesus as God became a human man died and was then resurrected back to life. How can we wrap our heads around such a profound thing. And yet we place our hope and faith in it being real. Jesus really did die



이 진리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섬겼 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분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박 해나 죽음이 닥쳐더라도, 그들 앞에 가신 구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으니 그들 은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죽음(박해)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 부활이요 □□□□ □□ 믿는 자는 죽어도 □□ 무릇 □□□□ □□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다음 생에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 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9 "I know your works,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I know the blasphemy of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Verse nine begins with Jesus telling His readers that He knows all about them. Such a statement might seem rather obvious and redundant. Of course God knows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One of the attributes of God is omniscience. But it's good to remind ourselves of this fact from time to time. It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we are going through difficult or tough times. We are not alone. God has not abandoned or forgotten us. He KNOWS what we are going through and is standing alongside us.

So Jesus knew about their "works." He was aware of how much they were doing to build the church and share the gospel. He also most tellingly knew about the **tribulation** they faced. The word "tribulation"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thilipsis*. It literally means "pressure."

When I was at school we played a game sometimes called "pile on." Someone would lie on the ground and then other people would lie on top of them. We ended up looking like a pile of human pancakes. The game ended when the person on the bottom suffocated to death or the pile collapsed. It was a silly game I know but it was fun to play in the pre-smart phone era. If you fancy playing it let me give you a tip. Go on the top. The person on the bottom has all the weight and pressure bearing down upon them.

This is the nature of pressure. It makes everyday living or operating difficult. The church in Smyrna was facing intense pressure because of their faith in Christ. I outlined the reasons for this in my introduction. In a city which was fanatical about emperor worship Christians stood out. They were different and people who stand out are often targetted for attack.

We also spoke about the Jews who sought every means to attack Christians. The attacks that Christians were suffering were resulting in poverty. Smyrna was a rich and wealthy city but apparently Christians were not. Perhaps they were being fined for not being good emperor loving citizens. Maybe they were being excluded from trading or operating businesses. Or perhaps the Jews were persuading people not to frequent their shops or do business with them. Whatever the case they were suffering materially for their love of Christ. But they are not to worry about this. The reason for this is simple. Followers of Christ are rich because of their relationship to Him. They are spiritually rich. The world may think it has what is of true value but they are wrong. There is no eternal happiness or joy to be obtained through material things. True richness comes only from knowing the Lord Jesus Christ as your one true saviour. The things of this world will soon all be gone. But your love for Him and His love for you will endure for eternity.

Jesus then goes on to make a shocking statement. It concerns those Jews who were attacking His

followers in the church of Smyrna. They were claiming to be “good” Jews. Men who were devout and pious who lived to do what God wanted. The Apostle Paul you may remember made such a claim about himself (Acts 22:1-4).

He firmly believed that in persecuting Christ's followers he was doing what God wanted. He soon found out he was not. Equally the Jews in Smyrna were not doing what God wanted. They may call themselves “Jews” but they were not true followers of God. They were followers of Satan. The Jews attacking Christians in Smyrna were members of Satan's church (synagogue). Please note that we are not necessarily speaking here of men who were ethnically Jewish. A “true” Jew is one who trusts God and believes in Jesus Christ (Philippians 3:3, Rom 2:12-21). Anyone, whether ethnically Jewish or not who denies Jesus as the Messiah cannot be pleasing God or doing His will.

**9 □□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나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나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 화당이라**

9 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은 너무 자명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전지전능입니다. 하지만 이 □□□□□□ □□□□ □□ □□□□.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직면한 환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환난**persecution”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thilipsis* 를 번역한 것으로, 문자 그대로 “압력pressure”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쌓아 올리기 pile on”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 눕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눕는 게임입니다. 결국 우리는 판케이크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게임은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이거나 덩어리가 무너지면 끝났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게임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재밌었습니다. 혹시 해 보고 싶다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세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무게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압력의 본질입니다. 매일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극심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열광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달랐고, 눈에 띄는 그들은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한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을 궁핍하게 했습니다. 서머나는 부요한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황제를 사랑하는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역이나 사업 운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점에 크리스토들을 들이지 말라고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부유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원한 행복이나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참된 구원자로 아는 데서만 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곧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제자들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한” 유대인이라고, 그리하여 독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 □□□□ □□ □□□□ □□□□□□(□□□□ 22:1-4).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칭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추종자였습니다. 서메나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유대인들은 사탄의 교회(회당)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꼭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빌립보서 3:3, 로마서 2:12-21).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아니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10 Do not fear any of those things which you are about to suffer. Indeed, the devil is about to throw *some* of you into prison, that you may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As I said before there are no words of condemnation present in this letter. The church in Smyrna may not have received the praises or the adulation of men. But it most certainly won God's approval. God was pleased with the way it conducted itself. Here in verse ten He starts by telling them what He wants. The first admonition is not to be afraid. How easy it is to look beyond the security we have in God and to become timid or fearful. So many in the western church today are fearful or frightened about what the world thinks. We must be careful they think not to anger or offend. We certainly don't want anyone to think we are unkind or unloving. But what they do not realise is that in weakening or watering down the gospel they make it useless and ineffective to save.

Those in the church of Smyrna are not to be afraid. Difficult times are coming, they will suffer. But they are to stay strong. Some of them we read will be imprisoned. They will be imprisoned for a period of testing for 10 days. This testing or refining would prove their faith.

As with many things in the Book of Revelation this period of time has been questioned and argued over for centuries. What exactly are the "10 days?" Let me give you some of the interpretations that have been put forward over the years.

Some claim that the "10 days" represent periods of persecution that will occur under the reign of 10 Roman emperors (Nero, Domitian, Trajan, Hadrian, Septimus Severus, Maximin, Decius, Valerian, Aurelian, and Diocletian).

Other interpreters view the "ten days" as symbolic, possibly indicating "complete tribulation." Numbers as I told you before are importan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number five represents human completeness. Each human hand has five fingers. A hand is complete when it has five fingers. So ten is human completeness doubled. Is that what is meant here? The persecuted Christians will need to withstand double what might be expected. In such a scenario the ten days might represent intense but short periods of imprisonment.

Some scholars think that the term is being used in a shorthand way to mean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It could be 10 days, weeks or months. Finally, we have those who think this is meant to indicate a literal period of ten 24 hour days.

Sadly there are no clues in the text for how we are to interpret this number. But that's not really the point.

The message that John is really trying to get across is the need to remain faithful no matter how long you suffer. Whether it be 10 minutes, hour, months, years or decades we are to cling to Christ and remain loyal. When we do remain loyal and faithful until death we are promised a wonderful reward. The reward is the **crown of life**. What on earth you may ask is the crown of life.

Today when participants take part in the Olympic games they are competing to win a medal. We offer rewards to the top three competitors in an event. You can win a gold, silver or bronze medal. In the ancient games there were no medals. The victor was awarded a laurel crown (*stephanos*). A crown was also worn at marriages and other special celebrations.





against the persecution? Was it eventually overwhelmed and destroyed or did it endure. I read a report from 2018 that said there were around 12 churches still in existence in modern day Izmir. They had around 500 members. Although many of these are Orthodox or Catholic there are a smattering of protestants. So the church through God's grace did survive. Pray for those Christians in Turkey. It is far from being an easy place to be a professing Christian.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church number 3. The letter to the church in Pergamos.

###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꺾은 막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편지 또한 귀 기울여 들어라는 권면으로 끝맺습니다. 읽고 나서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읽고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하지만 둘째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둘째 죽음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제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기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꺾은 막대에 던져라니 이것이 둘째 꺾은 막대. (계 21:8)**

이런 운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악된 삶에서 돌아켜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박해를 견뎌냈을까요? 결국 굴복하고 파괴되었을까요, 아니면 지속되었을까요? 2018 년 보고서를 읽었는데, 오늘날 이즈미르에는 약 12 개의 교회가 남아 있고, 교인 수는 약 500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정교회나 가톨릭 신자이지만, 개신교도 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교회, 버기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reading.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Choosing poverty over compromise**

As we saw in our study today Jesus praised the church in Smyrna for choosing poverty over compromise. Perhaps if they had compromised and tried to fit in they could have been rich and successful, at least in the short term. If they had gone along with emperor worship they might not have suffered the attacks that left them impoverished. They could have agreed to call Caesar "Lord," knowing they could later repent. They might have agreed not to go out sharing the gospel so as not to offend the Jews. These actions would have given the believers a measure of favour with the government and secured a much easier life. But at what cost?

The cost of being a bold and effective witness for Christ. The great cost of displeasing almighty God. When we compromise or agree with the world we water down and weaken the gospel message. The western church in so many places is so weak and wishy-washy that it achieves

nothing. Its members may have earned the acceptance of the world and ensured an easy life. But this is not what we are here to achieve.

May none of us ever choose to compromise when it comes to our faith. Even if being bold and courageous means persecution or poverty let us be strong.

**1. 가난을**

오늘 공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타협보다 궁핍함을 택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타협하고 세  
단기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했다면, 그들을 가난하게 만  
든 공격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  
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자들에게 정  
부의 호의를 얻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하고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큰 대가. 우리가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조할 때, 복음 메시지는 약화됩니다. 정말로 많은 서구 교회들이 너무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아무것도 이루  
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까 모르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우리 중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용감한 것이 박해나 가난을 의미할지라도,  
우리는 강해하기를 바랍니다.

**2 Jesus overcame and so shall we**

The church in Smyrna would have taken great comfort from this letter. They were facing intense persecution. They did not know what the future held. All they did know and could rest upon was that their Lord and saviour had already overcome. They were on the winning side. Jesus defeated death and now it holds no power over us.

We, too, must cling tightly to that fact. We may not face physical persecution for our faith. But we will face obstacles, difficulties and afflictions in our Christian lives. When we do meet these things let us cling to Christ. He is with us and our difficulties are just for a short time when placed against the backdrop of eternity.

Let us never forget. Jesus overcame and so shall we.

**2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편지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  
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육체적인 박해까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삶에서 장애물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은 영원이라는 배경 속에서 볼 때 잠깐일 뿐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